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⑳ '첫, 사랑을 위하여'(2025)

아낌없이 사랑 나누는 삶을 살라

20년 전쯤 상영한 '라디오스타'(2006)라는 영화가 있었다. 괴팍한 성격으로 서울에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어진 왕년의 가수왕 최곤(배우 박중훈)이 쫓겨가다시피 한 영월의 작은 방송국에서 라디오 디제이를 맡게 되는데, 첫 방송의 첫 멘트를 이렇게 시작한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울음, 첫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말에서 설렘을 느낀다.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신선함이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고 무료해진 우리는 문득 그 첫 마음, 즉 '초심'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다짐하는지도 모르겠다.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는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첫사랑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사판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지안(배우 염정아)은 혼자 대학생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런 지안의 딸 효리(배우 최윤지)는 언제나 당당한 싱글맘 엄마와 '딸바보 아빠'를 자처하는 엄마 친구 선영(배우 김선영) 이모 덕에 씩씩하게 우등생으로 자라 한국대 의대 본과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효리는 지안에게 말도 없이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청해시의 바닷가 마을로 가출을 한다. 자신의 미래인 딸 효리가 의대를 자퇴한 사실을 알고 딸을 찾으러 간 지안은 효리에게서 뇌종양이라는 뜻밖의 고백을 듣는다.

지안과 효리가 우연히 가게 된 청해시에는 마침 지안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정석(배우 박해준)이 아들 보현(배우 김민규)을 혼자 키우며 건축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안은 정석의 도움으로 효리의 꿈이었던 집을 짓고 청해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안과 효리의 제2의 인생, 여기에 그들의 첫사랑 정석과 보현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런데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의 제목은 왜 '첫사랑'이 아니라 '첫, 사랑'일까?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남녀 간의 '첫사랑' 이야기만을 담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석은 지안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청해시에서 처음 만난 효리와 보현 역시 서로가 첫사랑이다. 이런 일차적인 남녀의 첫사랑 이외에 드라마 제목 '첫, 사랑'에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사랑의 대상, 즉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처음 사랑 알게 한 존재 소중함 담겨
'본래 완전함' 깨닫는 것이 초발심
매 순간 처음처럼 지금 누리라 메시지

사실 지안은 효리의 친엄마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천덕꾸러기가 된 친구의 딸을 입양해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등학교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 그런 지안에게 엄마가 떠나던 날 가지고 간 캐리어와 똑같은 캐리어를 들고 '엄마'라며 나타난 인물이 있다. 알고 보니 미국에 이민 간 딸의 죽음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전직 의사 문희(배우 김미경). 딸의 죽음을 자책하는 문희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자신의 엄마를 마음으로 용서한 지안은 문희와 같이 살면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할머니, 엄마, 딸, 삼대가 함께하는 가족을 만든다.

한편,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오태오(배우 양경원)의 이야기도 시선을 끈다. 태오는 자신을 미워해서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서 만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한다. 태오의 어머니는 마음 약한 작은아들이 자기 탓을 할까 봐,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던 것. 이처럼 드라마는 다양한 어머니를 등장시켜 서로의 '첫사랑'인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불교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마 화엄의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일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발심하는 그 첫 마음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순간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첫 순간이 완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화엄경〉의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에서 열리는 법회를 시작으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의 순서로 천상계에서 법회가 열리다가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와 열리는 법회로 끝난다. 이때 각 장소에 따른 법회마다 설해지는 가르침의 내용이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보리수 아래에서는 부처님 세계에 관한 설법이 이루어지고, 천상계의 설법은 보살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출발해 천상계를 거쳐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오는 〈화엄경〉의 구조는, 중생이 보살도를 닦고 닦아 깨달음을 얻은 자리가 바로 처음 출발한 그 자리임을 일깨워 준다.

애초에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였다. 다만 스스로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산다. 내가 부처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은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삶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보살도는 사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부처가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장엄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화엄(華嚴)'이다. 온갖 보살도의 꽃[華]으로 불국토를 장엄[嚴]한다는 뜻이다.

내가 본래 완전함을 깨닫는 순간 그저 완성된 삶을 살아나갈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초발심이다. 변질되지 않은 최초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의 흔히 말하는 초심과는 분명히 다르다.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의 첫 마음은 초발심일까, 초심일까?

드라마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 사랑을 알게 한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첫 장면부터 뇌종양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주인공을 내세워 사랑하는 엄마가, 딸이, 가족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과 함께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매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바로 지금을 누리라는 것이다. 매 순간이 처음이면 매 순간이 마지막이니 따로 시작일 것도 없고 끝날 것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장엄할 뿐.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술 취한 코끼리도 스님들을 공경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㊴ 취상생신 인연(醉象生信 因緣)

⑥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옛날에 초복덕(超福德)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나라에 죽어야 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지만, 왕은 성품이 인자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이때 지혜가 많은 신하가 '걱정 마십시오. 대왕님이 살생의 죄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의 힘으로 죄인을 술에 취한 사나운 코끼리에게 끌고 갔다. 술 취한 코끼리는 죄인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땅바닥에 내려치려 했다. 그러나 죄인의 붉은 옷을 보고는 가사라고 생각해 내려놓으며 참회하고 슬피 울며, 그 사람을 존경하며 우러러보았다. 대신은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말했고 왕은 놀라 기뻐 찬탄하며, 전국에 영을 내려 삼보를 더욱 공경하게 하고 살생을 금했다. 선남자야, 그 취한 코끼리는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가사를 공경하고 악업을 짓지 않았다. 그런데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바라문 등은 온갖 악업을 지음이 술 취한 코끼리보다 더하며 … 내 제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문하며 감옥에 가두거나 그 목숨을 끊게 한다. 이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큰 죄를 범하며 선근을 불태우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⑦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과 재관, 거사들은 후세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그리하여 모든 스님에게 주는 의복, 음식 등 갖가지 필수품을 빼앗아 계율을 깨트린 악행 비구나 속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어 공동으로 쓰게 하거나 혹은 혼자서 쓴다. 따라서 국토를 보호하는 하늘, 신 등은 삼보를 믿고 공경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포악한 왕과 사문, 바라문 등에 대해 성을 낸 연유로, 그들은 오래지 않아 몸이 못쓰게 되며 …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36호부터 게재한 십악업(十惡業)의 ⑥과 ⑦을 끝내며, 다시 ⑧에서부터 ⑩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⑧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후세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법에 의해 출가한 이로서 총명하고 법을 많이 듣고 말이 원만하며 삼승의 법에 통하여 능히 전하며 유정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면, 법사를 괴롭히며 바른 법을 방해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일체 선신들의 분노를 사며 몸이 못쓰게 되며 …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⑨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이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선근이 미약하며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님들에게 보시로 주는 물건, 즉 사사(舍寺), 농장, 하인, 축생, 재보, 꽃· 과일나무 등은 덕을 갖추고 수행하는 비구들이 수용해야 하거늘, 저들이 강한 세력으로 빼앗아 자기와 남을 위해 쓴다. … 저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⑩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권속 등은 신심이 없으며 아첨하고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한 벗을 따라 행하며 성인의 법에 대해 의심을 품고, 후세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 않는다. … 나의 법을 믿어 받들지 않고 탑과 절을 부수며 비구들을 구박하며 마치 종처럼 부린다. … 이들은 하천한 사람의 몸도 얻기 어렵거늘, 이승의 보리를 증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는 자타를 해치어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이가 기름 짜는 업을 하는데, 낱낱의 씨에 벌레가 생겼고 바퀴로 누르면 기름이 흘러나온다. 보아라,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겠는가? 또 이 사람이 열 개의 바퀴로 계속 짠다면 하루에 짠 기름은 수천 섬이 될 것이요, 그렇게 천 년을 짠다고 하면, 그가 죽인 생명은 얼마이며 그 죄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지장보살마하살은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그는 무수한 생명을 죽일 것이며,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어 셈으로 비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위해, 열 개의 유곽을 두며 하나하나에 천 명의 음녀(淫女)를 두고 사람을 유혹해 정사(情事)를 행했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하면, 그 죄는 셀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열 개의 바퀴로 기름 짜는 사람의 죄도, 이 한 유곽에서 지은 죄밖에 되지 않느니라. 또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얻으려, 열 개의 술집을 두고 낱낱의 술집에 천 명의 술꾼을 청해 마시고 즐기기를 밤낮 계속했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했다면, 앞의 열 개의 유곽이 지은 죄도 이 한 술집에서 지은 죄밖에 되지 않느니라. 또한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위해 열 개의 도살장을 두고, 낱낱의 도살장에서 하루에 소, 염소, 사슴, 닭, 돼지 등 천 마리의 생명을 죽인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계속하면 그 죄를 헤아릴 수 없어 앞에 말한 열 개 술집의 죄도 이 한 도살장밖에 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기름 짜는 열 개 바퀴의 죄는 저 하나의 유곽에서 짓는 죄와 같고, 저 열 개의 유곽에서 짓는 죄는 저 하나의 술집에서 짓는 죄와 같으며, 저 열 개의 술집에서 짓는 죄는 저 하나의 도살장에서 짓는 죄와 같고, 저 열 개의 도살장에서 짓는 죄는 포악한 왕과 그들이 짓는 죄와 같으니라.'"

〈송림사 주지〉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홍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지상낙원 발리 4박6일

꽃피는 봄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박5일
다카마츠/시코쿠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